9월 수산물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러시아]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US백만달러, %)

구분	2012년 1-7월 누계			2012년 7월 당월		2011년 1-7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비중(%)	금액	동년전월대비(%)	전년동기 대비(%)	비중(%)
수입 전체	173,332	104.1%	100%	28,166	111.2%	145.8%	100%
식품 및 농업원료	22,033	87.6%	12.7%	2,953	90.2%	128.9%	15.1%

자료: 연방통계청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톤, %)

품목	2012년 1-7월 누계		2012년 7월 당월			참조	
	물량	전년동기 대비(%)	물량	전년동월 대비(%)	동년전월 대비(%)	'11.1-7/ '10.1-7	'11.7/ '10.7
신선·냉동어류	398	106.3	41.8	93.5	120.2	80.5	94.8

자료: 연방통계청(벨라루시와 카자흐스탄공화국과의 무역지수 합산)

○ 2012년 1-7월간 어류제품 총수입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 증가한 512.9천 톤 기록

- 수입구조에서 냉동어류 비중 47.3%, 신선·냉장어류 18.9%, 조제·저장처리어류 12.2%, 어류피레트 및 기타 어육 11.4%, 갑각류와 연체동물 8.7% 차지
- 어류제품 수입 증가는 HS코드 주요 상위코드에서 나타남. 즉, 신선 혹은 냉장어류 68.3%(39.4천 톤) 증가(성장을 보이는 주요 어종은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 냉동어류 2.2%(5.2천 톤) 증가(열빙어, 블루화이팅), 조제·저장처리어류 8.4%(4.8천 톤) 증가
- 이에 반해 어류피레트 및 기타 어육 수입 23.7%(58.3천 톤까지) 감소, 갑각류 11.9%(29.5천 톤까지), 연체동물 10.5%(15.3천 톤까지) 감소

○ 2012년 1-7월간 주요품목별 수입구조

- 신선, 냉장 및 냉동 대서양연어, 무지개송어: 전년동기대비 65.6%(42.2천 톤) 증가한 106.5천 톤 집계(전체 수입의 20.8% 차지, 주요공급국 노르웨이)
- 냉동청어: 전년동기대비 1.7%(0.9천 톤) 증가한 54.7천 톤(전체 수입에서 비중 10.6%)
- 냉동열빙어: 전년동기대비 64.5%(16.9천 톤) 증가한 43.1천 톤(비중 8.4%, 주요공급국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 냉동정어리: 전년동기대비 2.5배 증가한 37.8천 톤(비중 7.4%, 주요공급국 에스토니아)
- 냉동블루화이팅: 전년동기대비 13.5배 증가한 16.2천 톤(비중 3.2%, 주요공급국 아일랜드)
- 냉동고등어: 전년동기대비 27.3%(12.3천 톤) 감소한 32.8천 톤(비중 6.4%)

○ 2012년 1-7월간 주요수입상대국(다음 5개국은 어류제품 수입규모의 약 60.9% 차지)

- 1. 노르웨이: 전년동기대비 25.7%(40.1천 톤) 증가한 195.8천 톤(수입규모에서 비중 38.2% 차지)
- 2. 중국: 전년동기대비 22.1%(12.6천 톤) 증가한 44.5천 톤(비중 8.7%)
- 3. 아이슬란드: 전년동기대비 12.4%(3.4천 톤) 증가한 30.9천 톤(비중 6.0%)
- 4. 에스토니아: 전년동기대비 3.2%(0.7천 톤) 증가한 22.8천 톤(비중 4.4%)
- 5. 라트비아: 전년동기대비 10.6%(2.2천 톤) 증가한 18.5천 톤(비중 3.6%)

○ 2012년 1-7월간 국가별 주요수입품목

- 노르웨이: 신선 혹은 냉장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 83.4천 톤(66.5% 증가), 냉동청어 37.1천 톤(20% 감소), 냉동열빙어 27.3천 톤(82% 증가), 냉동청어어육(갈은 것 포함) 15.7천 톤(24.5% 감소), 냉동고등어 14.3천 톤
- 아이슬란드: 냉동열빙어 14.8천 톤(32.1% 증가), 냉동고등어 6.0천 톤(20% 감소), 냉동블루화이팅 2.4천 톤, 냉동청어 2.4천 톤
- 중국: penaeus속의 냉동새우 7.1천 톤, 냉동틸라피아피레트 6.0천 톤, 냉동연체동물 5.2천 톤, 냉동명태피레트 4.6천 톤
- 에스토니아: 냉동킬카 혹은 스프랫 17.7천 톤(0.6% 증가)
- 라트비아: 사르디넬라, 킬카, 스프랫 통째 혹은 조각으로 담긴 통조림 및 조제품 14.3천 톤

< 2012년 1-7월 러시아 수산물 수출입동향 >

(단위: 천톤, US천달러)

HS 코드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가격($/1톤)	물량	금액	가격($/1톤)
03류	어류 및 갑각류, 연체동물	-	1,433,320	-	-	1,241,317	-
0301	활어	0.0	34.4	…	0.3	7,410.5	…
0302	신선·냉장어류	1.2	1,684.1	1,408.1	97.1	464,314.5	4,782.9
0303	냉동어류	758.6	1,128,319.2	1,487.4	242.7	378,443.7	1,559.6
0304	어류피레트	28.2	94,477.8	3,348.3	58.3	167,079.3	2,868.2
0305	건조, 염장어류	3.3	20,712.3	6,339.1	7.4	34,577.5	4,644.8
0306	갑각류	21.1	163,409.8	7,758.3	29.5	136,520.6	4,630.7
0307	연체동물	5.8	15,962.4	2,772.3	15.3	52,722.1	3,439.1
0308	수생무척추동물	2.8	8,719.6	3,082.1	0.0	249.0	…
16류	어류조제품 혹은 저장처리어류제품	-	-	-	-	-	-
1604	조제·저장처리어류	9.7	30,088.7	3,108.7	54.4	118,687.2	2,181.8
1605	조제·저장처리 갑각류, 연체동물	0.6	3,409.6	…	7.9	34,797.6	4,423.8

자료: 연방통계청

주: 카자흐스탄과의 무역지수 합산하지 않은 잠정치(러시아 관세청 자료근거)

□ 소비 동향

○ 수요가 가장 높은 품목은 청어, 명태, 해산물

- 러시아는 수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러시아국경 전체길이의 절반 이상인 38.8천km가 러시아의 해상경계선임), 어류 및 어류제품 시장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실정임. 선진국들과 비교 시에 러시아인들의 산, 신선, 냉동어류 소비는 2009-2011년간 1인당 0.6kg 정도 증가하였고, 여전히 유럽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임
- 러시아에서 어류의 대부분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음. 소형상점들에서는 어류 및 어류제품의 21% 이상이 판매되고 있음. 15% 이상은 시장과 미니마켓들이 차지함. 작년에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인 품목은 청어, 명태, 해산물임. 그 다음으로 고등어, 연어, 무지개송어 등이 있음
- 2011년에 러시아에서 어류 소매판매는 금액기준 20% 성장하였고 2012년 1분기에 소매유통에서는 어류, 어류제품 868억 루블이 판매됨

□ **향후 시장 전망**

○ 이슈 현안

○ 어류제품 수입상들 러시아시장 가능성 평가

- 미국농업부는 러시아의 WTO 가입 조건하에 러시아어류제품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 발전을 전망함. 미국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내에 러시아는 수입산 어류 및 해산물의 전망 높은 대형소비국으로 남게 될 것임
- 2011년 러시아의 수산품 수입액 규모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26억 달러로 집계됨. 해외분석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소비자는 구입제품의 품질과 다양성에 대해 더욱 자주 생각하기 시작함. 슈퍼마켓들은 구매자에게 가능한 훨씬 더 폭넓은 선택의 해산물을 제안하고자 노력함
- 시장전문가들이 밝히는 바로는, 러시아인들의 냉동 및 신선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소비 연성장률은 20%에서 30%까지로 예상됨. 블랙타이거새우, 여왕새우, 바다가재, 닭새우하목, 가리비, 문어, 게와 같은 높은 가격대의 제품 소비는 40-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외에도,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인해 비록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모든 범주의 수생생물자원 제품의 수입관세율 인하를 초래할 것임. 특히, 해외분석가들은 다음 수치들을 도출함: 냉동, 신선, 냉장어류(피레트 포함)에 있어서 평균수입관세율은 제품종류에 따라 10%에서부터 3-8%까지 인하될 것임. 연어, 무지개송어피레트의 경우 2016년경에 수입관세율이 4%대로 확립될 것이며, 대구피레트의 경우 2015년경 5%가 될 것임. 냉동민대구와 보스톤블루피쉬피레트 수입관세율은 2014년경 7%까지 떨어질 것임
- 냉동새우와 가재의 경우 수입관세율은 종류에 따라 2014-2015년경 3-5%까지 떨어지고, 냉동게의 경우 2015-2016년경 5%까지 인하할 것임. 굴 수입관세율은 2015년경 7%까지 하락, 가리비과의 경우 2015년경 6%까지, 홍합의 경우 종류에 따라 2016-2017년경 5-6%까지 내릴 것임
- 한편, 러시아 수산청장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 어류시장에서는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에도 수입대체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함. 수입관세율 인하는 그리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우선 WTO 범주 내에서 그 인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수산청장은 밝힘

(자료: 피쉬뉴스)

○ 동식물검역국, 수산품 수출용 수의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동전자시스템 가동

- 동식물검역국은 수산품 수출에 필요한 수의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동화정보시스템 '아르구스'를 가동시킴. 올해 6월 14일부터 수산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수산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화정보시스템 '아르구스'가 개발되었고, 전자형식으로 수산품 수출에 필요한 수의증명서(5i 양식) 발급 신청서 작성을 위한 모듈이 사용되고 있음. 몇 분 이내에 전자모듈은 대외경제활동참가자들로부터 수령된 자료들을 처리하여 결과를 보여줌
- 러시아연방국경수의감독부서의 정보에 따르면, 가동된 자동화모듈은 신청서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수의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전자형식으로 신청서에 별첨할 수 있게 함. '아르구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의증명서 수령을 위한 전자신청서 신청지침서가 마련되어있음
- 게다가 대외경제활동참가자들은 수의증명서 5i 수령을 위한 신청서를 전자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종이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며, 혹은 둘 다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음

(자료: 동식물검역국)

○ 러시아, 양식업 생산규모 증가를 위한 법 채택 예정

- 올해 11월에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양식업 법이 채택될 예정이며, 산업기능의 모든 시스템을 재건축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자 함. 해당 프로그램에서 고려된 조치들은 러시아에서 양식생산규모를 향후 7년 내에 3배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임

- 2011년에 러시아는 어업발전을 '2020년까지의 농업발전'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고 그 결과 양식업은 산업들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음. 이러한 산업들 발전에 향후 8년간 직접적인 투자로 1.5조 루블이 할당될 예정이며 특혜대출과 간접적 보조금 형태로 막대한 양의 자본이 할당될 예정임. 얼마 전에 승인된 '러시아에서 양식업 발전개념' 범주 내에서 러시아정부는 양식생산을 2011년 134천 톤에서 2020년에 410천 톤까지 약 3배 증가시킬 목표를 세움. 새로운 양식업 법은 이 수치들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할 메커니즘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임
- 전러시아 어업 및 해양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연간 양식업 상품 생산 성장률은 13.4%로 집계됨. 작년에 가장 높은 발전 성장률을 보인 것은 해수양식과 무지개송어양식, 철갑상어양식임. 2011년에는 양식업 상품 135.4천 톤이 생산됨

(자료: 러시아 수산청)

○ 수입 전망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향후 수입산 비중 성장할 수도

- 2011년 러시아 어류 및 어류제품 시장규모는 물량기준 3% 성장함. 시장발전의 원인은 무엇보다 수산업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 때문임. 러시아시장규모에서 우세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국생산자 제품이며, 수입산 제품의 비중은 2.6% 감소됨. 하지만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향후 러시아어류시장에서 수입산 제품의 비중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시장은 현존하는 수요와 공급규모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수입산의 공급이 불가피함. 러시아시장으로 어류 및 어류제품을 공급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핀란드,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음. 2011년에 노르웨이는 수입산 산 생선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함(물량 기준). 약 24% 정도는 핀란드가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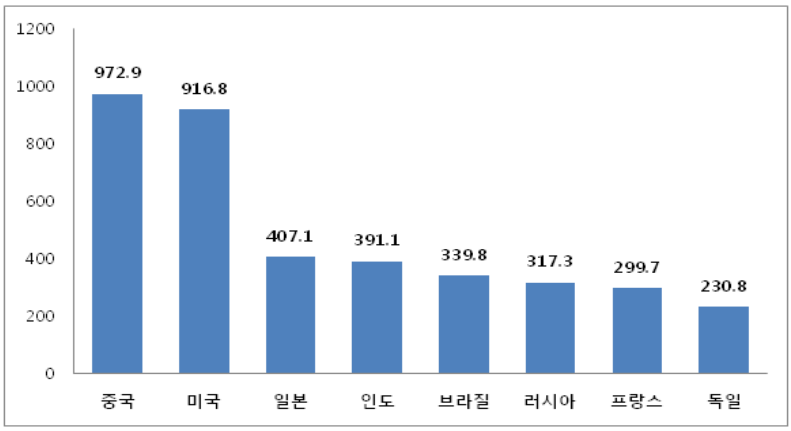
□ 러시아 FMCG 리테일 동향[1)]

○ FMCG 시장규모

- 2011년 결산 시에 러시아는 FMCG(패스트 소비재, fast-moving consumer goods) 시장규모(금액기준)에서 세계 6위를 차지함. 2010년에 유럽에서 대형식품시장이었던 프랑스를 제쳤고 3,173억 달러로 집계됨

< 국가별 FMCG 소매거래 규모 >

(단위: 십억 달러)



- 러시아 FMCG 시장규모 성장을 촉진시킨 주요요소는 소득증가와 식품구입에 할당되는 주민들의 지출구조 변경이라 할 수 있음
- INFOLine 분석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의 WTO 가입은 러시아로의 식품 수입 조건들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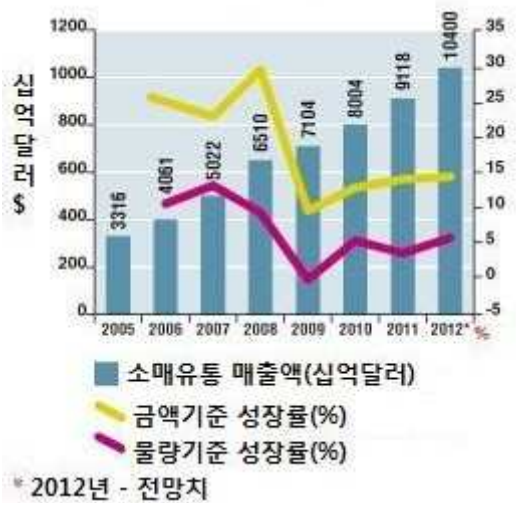
1) 러시아 FMCG 리테일(소매유통)에 관한 조사는 INFOLine사에서 실시한 자료에 근거함.

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소매유통업체들로 하여금 러시아공급업자들에게서 연방브랜드들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훨씬 품질이 좋은 상품들을 구입하게 해 줄 것임

○ 식품 소매유통거래

- 2011년 식품 소매유통거래(루블 기준) 성장률은 2010년 대비 1.2%p 성장함. 2000년부터의 시기동안 인플레이션 수준이 3.9%(2010년 12월 대비 2011년 12월)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장률 구조(금액기준)에서 75%까지는 가격인상과 연관되며 최대 25%는 소비물량증가와 연관됨
- 낮은 식품소비(물량기준) 성장률과 대형소매업체들 간의 가격경쟁 심화와 더불어, 이미 현존하는 상점들 옆에 새로운 상점들을 오픈함으로써 방문객 감소를 초래하여 판매 지수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함

< 2005-2012년 러시아 식품 소매유통거래 동향 >



-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경쟁심화는 부동산임대료 인상을 초래하고, 연방 및 지역소매유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지만 경쟁이 덜 치열한 만 명 이하의 인구 거주지(디스카운터와 집근처 상점들용)와 20만 명 이하의 인구 거주지(하이퍼마켓용)로 방향전환을 하는데 전제를 마련함

○ 러시아 FMCG 대형소매유통업체

- 2011년 주요 트랜드는 소매부문에서 지속적인 집중화 강화였음. 이는 후방군 격의 체인점들 대부분의 성장률 감소와 대형멀티형태의 체인점들('마그니트'와 X5 리테일그룹), 큰 규모의 매장들을 발전시키는 유통업체들('아샨', '메트로', '오케이'), '집근처 상점'형태의 연방유통업체들('모네트카')의 높은 성장률에 연유함
- 2011년에 2개의 러시아대형소매기업인 '마그니트'와 X5 리테일그룹은 100개 대형 FMCG 리테일에서 매장면적 크기의 46.3%를 차지함(2010년 47.1%, 2009년 36.7%, 2008년 23%)

< 2010-2011년 상점수와 매장면적에 따른 러시아 FMCG 대형소매유통업체 순위 >

순위	법인 명칭	브랜드(상점명칭)	기본형태	상점 수		매장 총면적(천㎡)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1	X5 리테일 그룹 N.V.	'삐쪼로치까', '베레끄레스톡', '카루셀' 등	집근처상점, 디스카운터,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2469	3002	1555.1	1727.3

2	개방주식회사 ‘마그니트’	‘마그니트’	디스카운터, 하이퍼마켓	4055	5309	1422.3	1970.2
3	유한책임회사 ‘아샨’	‘아샨’, ‘아샨-시티’, ‘나샤 라두가’	하이퍼마켓	44	49	452.3	498.1
4	유한책임회사 ‘메트로 케쉬 앤 캐리’	메트로 C&C	하이퍼마켓	57	62	464.5	499.5
5	개방주식회사 ‘딕시 그룹’	‘메가마르트’, ‘미니마르트’, ‘딕시’, ‘빅토리야’, ‘크바르탈’ 등	집근처상점, 디스카운터,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646	1119	227.9	405.1
6	유한책임회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엑스프레스’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57	71	287.4	346.0
7	유한책임회사 ‘렌타’	‘렌타’	하이퍼마켓	39	42	281.7	306.0
8	개방주식회사 ‘시디모이 컨티넨트’	‘시디모이 컨티넨트’, ‘나쉬 기베르마르케트’	집근처상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146	155	194.2	249.1
9	유한책임회사 ‘엘렌멘트-트레이드’	‘모네트카’, ‘모네트카 수페르’	디스카운터, 슈퍼마켓	254	370	125.5	180.1
10	유한책임회사 ‘마리야-라’	‘마리야-라’	슈퍼마켓, 집근처상점	274	371	105.9	140.3

- INFOLine&러시아 리테일러 Top-100 순위에 포함되는 FMCG 리테일러 Top-10의 매장면적 ㎡당 수익금과 총수입금 지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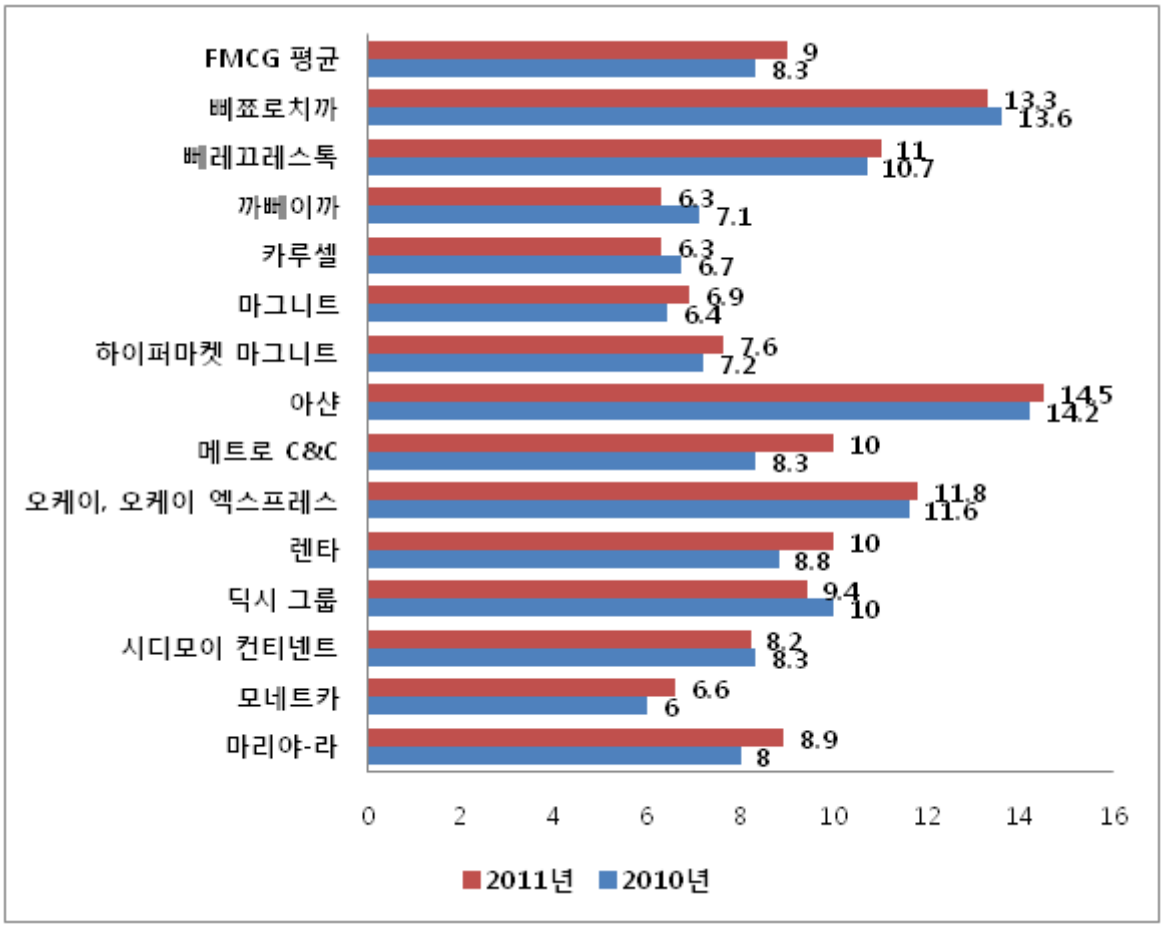
< 2009-2011년 수익금에 따른 러시아 FMCG 대형소매유통업체 순위 >

순위	법인 명칭	브랜드(상점명칭)	기본형태	수익금(십억루블, 부가가치세제외)		
				2009년	2010년	2011년
1	X5 리테일 그룹 N.V.	‘삐쯔로치까’, '뻬레끄레스톡‘, ’카루셀‘, ’삐쯔로치까 막시‘, ;뻬레끄레스톡-엑스프레스	집근처상점, 디스카운터,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275.1	342.6	452.53
2	개방주식회사 ‘마그니트’	‘마그니트’	디스카운터, 하이퍼마켓	169.86	236.19	335.7
3	유한책임회사 ‘아샨’	‘아샨’, ‘아샨-시티’, ‘나샤 라두가’	하이퍼마켓	158.36	178.1	195.0
4	유한책임회사 ‘메트로 케쉬 앤 캐리’	메트로 C&C	하이퍼마켓	114.30	117.99	139.96
5	개방주식회사 ‘딕시 그룹’	‘메가마르트’, ‘미니마르트’, ‘딕시’, ‘빅토리야’, ‘케쉬’, ‘됴쇼보’, ‘크바르탈’	집근처상점, 디스카운터,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54.26	64.80	102.23
6	유한책임회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엑스프레스’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67.88	82.67	93.13
7	유한책임회사 ‘렌타’	‘렌타’	하이퍼마켓	55.60	70.60	85.0
8	개방주식회사 ‘시디모이 컨티넨트’	‘시디모이 컨티넨트’, ‘나쉬 기베르마르케트’	집근처상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44.59	46.31	53.0
9	유한책임회사 ‘엘렌멘트-트레이드’	‘모네트카’, ‘모네트카 수페르’	디스카운터, 슈퍼마켓	24.32	29.22	37.4

10	유한책임회사 '마리야-라'	'마리야-라'	슈퍼마켓, 집근처상점	17.61	22.49	30.88

< 2010-2011년 FMCG 체인점 매장면적 ㎡당 수익금 >

(단위: 천 달러)



○ 전망

- 2012년에는 식품시장(금액기준) 성장률이 14%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량기준 성장률은 2010년 수준(5%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시장분석가들은 이미 현존하는 상점들과 가까운 위치에 새로운 상점들을 오픈하는 것으로 인해 2012-2013년 소매유통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연방대형체인점들의 상당수가 자본금 유치조건들이 악화됨으로 인해 2012-13년에 규모가 큰 인수합병(M&A) 거래가 몇 번 일어날 수도 있음
- 2012년 FMCG 체인점들의 발전을 이끌 주요요소는 물류시스템 최적화, 카테고리별 매너지먼트 정착, 자체상표 개발 등이 있음. 또한, 대도시들에서 하이퍼마켓 부문 포화성장과 디스카운터 부문에서 가격전쟁으로 인한 마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저작권자 ⓒ aT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